

현 이남당국자는 집권하기 전부터 《균형외교》를 떠들었고 집권해서는 그것을 외교정책으로 표명하였다. 말하자면 주변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선임자인 리명박《정권》처럼 친미일변도의 교가 아니라 《균형외교》를 통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절》하면서 그것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또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균형자적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공식화한것이다. 이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듯 《대통령》인수위원회시절에 태평양전미 미국에는 《특사단》을 파견하던 전례를 깨뜨리고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이웃 나라에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언급도 퍼졌다. 또 《대통령》 취임식때에도 미국대표단이 아닌 이웃나라 《축하사절단》을 먼저 만났다. 이를 두고 우리 동료들속에서는 현 당국이 정보원과 군사이비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쥐였지만 그래도 외교정치는 제대로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종의 추측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빚나 가게 되는데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라고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치는 미국의 요구에 청와대에서 새어나온 《취임이후 4월 중국방문설》은 사막에 떨어진 빗방울의 물마냥 가뭇없이 사라지고 현 당국자가 전례에 따라 《대통령》취임식이후 처음으로 미국방문을 하는것을 보면서, 더우기 현 당국자가 미국행기간 아름다운 우리말은 태평양에 묻어놓았는지 서

투른 영어로 친미사대굴종의 극치를 부리고 《윤창중성추행》과 같은 특대형사건으로 민족에게 치욕을 들뜨우는것을 보면서 느낀것이란 오강부경으로 물을 마시는것과 같은 역겨움과 배신의 감정뿐이었다.

이남당국이 떠드는 《균형외교》란 이처럼 한갓 말치레였고 그 밤에 그 나물이라고 친미일변도외교를 실시한 선임 《정권》과 별반 다른것은 없었다.

최근 이남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진행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미국주도하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THAAD(싸드)》배치문제를 놓고 취한 행동도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세계가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라고 하고있는 지금 동북아시아지역은 세계의 주요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호상작용하는 매우 예민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아마도 이 지역이 풍부한 자연부원과 함께 21세기에 들어와 경제규모와 발전속도가 날로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대국들의 패권다툼이 그 어느 지역보다 심하고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긴장도 또한 높다.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군사분계선을 축으로 북남사이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어있어 만일 여기에서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국부전쟁, 제2의 조선전쟁으로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리

해관계로 하여 세계적인 전쟁으로 될것이라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물론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내외호전세력들이 강행하는 무모한 북침전쟁연습들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남당국이 주권머리가 있어 《균형외교》를 할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을 중지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남당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저들의 어리석은 《홍수통일》야망의 실현을 위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한 고리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과연 이것이 친미일변도정책의 산물이 아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자적역할》인가.

마지코보면 이남당국이 떠드는 《균형외교》란 시대착오적인 판단과 자기능력에 대한 과대망상에 기초한것으로서 전혀 불가능한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지만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사이 서로 언쟁이나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말리자면 언변도 좋아야 하지만 어지간히 힘도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본인만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남당국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항공모함, 전략핵잠수함, 신형연안전투함 등 해군무력의 60%를 배치하는것을 공식화하고 하나하나 실행해나가고있다. 그런가하면 《B-2》 핵전략폭격기를 판도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전개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을 비롯하여 그 주변지역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싸일방위체계확립을 서두르고있다. 이것이 조선반도주변국들의 경제심을 자극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에 배치하려는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THAAD(싸드)》를 놓고 주변국들의 신경은 극도에 이르렀다. 탐지거리가 최대 1800km에 이르는 싸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주변국의 주요도시들과 군사시설들이 미군의 탐지권에 들고 임의의 순간에 라격대상이 될수 있다는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미국이 싸드가 북의《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배비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주변국들에게는 눈감고 이용하는 격이고 눈에는 가시로 여겨질뿐이다. 하기에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미국에 남조선에 대한 싸드의 배치를 당장 철회할것과 이남당국자들에게는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이남당국자들은 미국과 주변국들사이에 끼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곤욕을 치르고있다.

그것도 그렇것이 이남당국은 주변국들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하기도 난처하기때문이다.

생산과 소비, 무역과 투자 등 경제분야에서 이웃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진 이남의 처지에서 미국의 요구를 우선시하여 그들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그로 인해 경제에서 입는 타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이웃나라뿐만이 아니다.

최근 시기에 들어와 미국과 로씨야간에는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싸고 서방언론들이 평하듯이 《제2의 뎡진》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로씨야의 영향력확화를 막기 위해 유럽동맹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룬의 주중세력들을 대로씨야제재소동에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로씨야가 강력히 반대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싸드의 남조선배비까지 강행한다면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현 이남당국이 집권이후 《신유라시아건설구상》이라는것을 내놓고 남-북-로-중-중앙아시아-유럽으로 가는 《비단강》을 열어 전력화,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네르기기반시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새로운 유라시아시대를 열어나간다고 떠든것은 자라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이남당국은 유라시아대륙의 중앙국가인 이웃나라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신유라시아건설구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주변국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러한 이남당국에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심선 뺨은 공 나무아미타불되는 격으로 야심적으로 추진해보려고하는 《신유라시아건설구상》이 무용지물로밖에 될수 없다.

결국 이남당국은 미국과 이웃나라들속에 끼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있는 샌드위치신세에 놓여있다. 이남외교전문가들을 속에서 《동북아시아에 일고있는 패권경쟁의 삼각과도에 휩쓸려》〈한국〉외교가 표류하고있다.》, 《위험한 세바줄라기의교》라는 우려속에 이웃나라들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쪽을 택하라면 당국은 과연 누구를 택하겠는가.》라는 우려와 불안이 나오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와 안보는 태평양너머 미국에게, 경제와 그 무슨 《구상》같은것들은 주변국들에 매여있는 이남당국이 이에 무슨 대답을 하겠는지 궁금만 하다. 중당에는 곧 70년동안 주중관계에 있는 미국에 더욱 철저히 가물겠지만 그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후과가 차츰질지 모를 일이다.

그 누군가가 말한것처럼 력사는 반복이라더니 이남당국이 처한 현 상태를 보느라니 힘이 약해어제는 서쪽에 불고 오늘은 북쪽에 불고 래일은 동쪽으로나 저 멀리 태평양너머의 미국에 운명을 맡기던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봉건정부의 가궁한 처지를 다시금 련상케 한다.

시대변화에 대한 감각은 물론 힘도 없어 고래싸움에 끼운 새우마냥, 랑열의 밀가루반죽에 끼운얇게 저민 고기토막신세와 같은 이남당국이 제 처지도 모르면서 그 무슨 《균형외교》이니, 《균형자적역할》이니 뉘니 하는것을보면 가소롭고 처량해보이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이곳 주민들이 즐겨하는 샌드위치가 어쩌다 찾은 식당의 식탁에 오를 때면 가궁한 이남당국자들의 처지가 떠올라 역겹기만 하다.

이남위정자들이 떠드는 《균형외교》란 비굴하기 그지없는 《굴욕외교》, 《사대매국외교》를 가리우기 위한 포장지이며 동족을 압살하고 어리석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압박공조》를 합리화해보려는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까지 북의 자위적전쟁억제책《제지》와 《개혁, 개방》을 유도해달라고 비굴한 청탁을 올린 일삼으며 쓸개까지 서슴없이 바치는 이남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반론을 못할것이다.

지역의 정치군사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지역체제를 주도해가고있는 북의 자주정치, 자주외교와 이에 상반되는 남의 사대정치, 《굴욕외교》를 대미해보느라니 우리 민족이 살길은 역시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뿐만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강렬히 든다.

이 글을 맺으면서 이남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싶다. 그것은 그 무슨 《균형외교》를 외우기전에 미국에 빼앗긴 주권부터 먼저 찾으라고.

재가나다동포 림 민 순

추석민심에 비친 남조선정치상

옥더 떠올랐고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차다.

남조선에서 추석과 설명절등이 있는 후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을 반영한 명절민심이 전해져오고있지만 이번 추석민심처럼 나쁜것은 일찌기 없었다고 한다. 지

역구들에서 추석을 보낸 여야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민심이 싸늘하다 못해 얼음같다. 민심이 성을 내고있으며 심지어 《국회》를 해산하라는 말도 한다고 전했다.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여야는〈세월〉호특별법론의를 빨리 하고 민생법안도 처리하라.》, 《〈세월〉호특별법

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이것이 민심의 호소였다.

《세월》호참사가 있을 때 로부터 무려 140여명,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는 민심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가 상징되었지만 진실규명을 두려워하는 집권세력의 방책책동으로 하여 아직

까지도 끝을 보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지체대로 치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수밖에.

민생중의 민생인 인민들의 생명안전보장문제도 정치적리해타산을 앞세우며 외면하다 못해 오히려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썩은 남조선정치에 민심이 등을 돌리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민속명절 추석을 전후로 하여 남조선민심이 세차게 끓었다.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레년에 없이 《이번 추석은 제 가족이 아닌 〈세월〉호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며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로, 서울을 광화문광장으로 모아졌다. 《가족들이 가장 보고싶을 때가 명절인데 단원고 학생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힘을 주고싶어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번 추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석》이다. 《특별법제정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생각이였다.》고 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통성장에 뛰어난 학생도 있었다. 추석당일에는 500여명의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들어 《세월》호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단식통성에도 참가하면서 열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마디로 이번 추석명절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세월》호정국은 가라앉은것이 아니라 더

런이여 발생하고있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공수특전대단의 부대에서 그 무는 《포로체협》훈련을 한다며 진행한 살인적인 훈련으로 2명이 질식되어 죽고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

1군사평원이 근무지를 리탈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추태를 부려 군복을 벗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반 사병에서 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직위와 병종에 가림이 없이 벌어지는 각종 범죄행위를 두고 남조선 각개는 《구역질나는 쓰레기 군대》, 《범죄자들의 집합장소》라며 환멸을 터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군대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부패집단임을 말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그 무슨 《웅성》이니 뉘니 하며 실처대는것이야말로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모르고 날뛰는 격이다.

성 증 삼

군대 아닌 오합지졸

최근 남조선군부대내에서 자살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렇게 잦아도 흉흉한 민심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있다.

지난 6일 남강원도 속초 부대의 창고에서는 한 사병이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그런데 그

이런지러한 각종 사건들도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패륜집단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남조선인터넷언론이 단죄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0일 《세월》호유가족들을 모독하는 괴뢰보수패거리들의 망란적인 망동을 단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의 국유익보수단체 패거리들이 6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단식통성을 벌리는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비난하였다.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려는 글은 각오를 가지고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통성을 시작한 때로부터 두달

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기간 남조선의 각계층이 련대투쟁을 적극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유가족들앞에서 보수패거리들이 음식을 차먹어대며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망란적인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린것은 정치적매물과가 아니고서는 상상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이러한 패거리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수패거리들의 그리움의 대상은 과거 리승만의 정치강제집단이었던 《서북청

년단》이라고 하면서 리승만은 이 강제집단을 내세워 제주4.3사건을 진압하고 《반공》의 미명하에 온갖 학살과 방화, 강간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리승만 《정권》이 민중의 심판을 받고 《서북청년단》도 이미 력사박으로 사라졌다고 하면서 이번 광기는 보수패거리들이 궁지에 몰려있음을 반증해놓았다고 주장하였다.

글은 패륜집단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력사의 준엄한 교훈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과 2012년의 자살사망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조선은 지난 200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13.8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8.9명으로 늘어나 자살률이 2배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자료가 있다.

경 제 협 력 개 발 기 구(OECD)의 보고서 《한으로 보는 사회상 2014년》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명으로 10년동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년령별 자살시도현황》자료에 의하더라도 전 년령대에 걸쳐 하루 6명정도로 자살시도건이 있었고 그중 청소년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은 《세계1위》를 기록하고있다.

남조선의 보혁개발원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생명보험가입자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그 군원도 경제적인곤에 의한 극심한 생활고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돈이 없어 사회적버림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해마다 1만 5 000여명, 하루에 평균 40명이나 된다.

800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노동자 10명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삶을 연명하고있으며 저임금층은 《세계1위》라고 한다.

돈이 없으니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 련에, 결

《1 위》로 보는 남조선의 인권

흔,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유행되고 자식들의 목숨을 제손으로 끊어버리거나 함께 자살하는 부모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올해 2월 마지막월세를 내고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자살한것을 비롯하여 경기도 동두천에서 30대 어머니가 내살자리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광주에서 40대 아버지가 병을 앓고있는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 등 지난해 몰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택한 자살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공식집계된 남조선의 가계총부채는 사상 최대규모인 1 040조원으로서 이것은 사회적량국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람들을 자살에 떠밀고있다.

자살은 남조선군내부에서도 예방이 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 전염병처럼 전파되고있다.

구라, 폭행, 각종 기합으로 하여 불구자, 정신병자로되는 사병수가 지난해만도 4만 5 000여명에 달하며 끝내는 군부중에 총과 수류탄을 리용하거나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휴가기간 자기 집속사에서 떨어져 죽는것과 같은 자살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군내부의 전체 사망자의 65%에 달한다고 한다.

군당국이 《자살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심사병》을 구분하였는데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

정출신의 병사는 《무조건 관심사병》으로 규정해놓아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다.

《자살왕국》,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쓰고있는 남조선의 자살률은 미국의 2.5배, 일본의 2배나 된다.

불명예스러운 《세계1위》를 기록하고있는 자살, 그것은 사회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극단한 선택이 아니라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에 의한 타살이다.

자살 그 하나만도 남조선의 인권문제의 축소라고 할수 있다.

자살뿐만이 《세계1위》가 아니다.

고용로 동부 가 발표한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따르면 노동자 1만명당 사망수는 1.01명으로 산업재해사망률도 《세계1위》, 교통사

망률도 100만명당 114명으로 《세계1위》, 남성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89%인 반면 여성취업률은 60%로 그 격차가 20%로 남녀간 취업률격차도 세계적인 기록이며 살인범죄 발생률은 10만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중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몇가지 수사자료가 말해주는것처럼 남조선은 청소년자살률, 노인자살률, 교통사고사망률, 산업재해사망률, 저출산률, 노인빈곤률 등에서 수칙와 절망의 《세계1위》를 기록하고있다.

남조선은 그대로 반인권전시장이고 인권유린박물관인 것이다.

실례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터무니없게도 그 무슨 《북

인권기록전시관》을 세운다고 떠들고있으니 까마귀 배로를 흉보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부인하건대 사람을 제일로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 공화국에서 《인권》문제란 거북등의 털처럼 있을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에 게 묻건대 반인권의 《세계1위》를 기록한것도 모자라 동족대결의 악행으로 《세계1위》를 펼쳐보려는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의 《인권》을 운운하며 동족에 대한 정치적모략과 대결에 몰아치기 전에 꿀대대로 꿀아 써먹고드러진 남조선사회의 인권실태를 터수습하는것이 옳은 처사일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보안법》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